

유행스타일을 중심으로 한 사무직 남성의  
의복태도와 성역할 태도와의 상관연구

김 재 희 · 정 삼 호

중앙대학교 의류학과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Clothing Behaviors and  
Sex-Role Attitude in the Group of White Collar Adult Male  
-According to the Fashion Style

Kim Jae Hee · Sham Ho Chung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Chung-Ang University  
(1994. 11. 4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reference of fashion style, the clothing attitude and the preferred fashion style based on sex-role attitude.

Samples in this study were 305 white collar adult male in Seoul, Korea.

The stimuli consisted of 16 color photographs made by identical manipulations of 4 independent variables (jacket, pants, vest, neck-tie) consisting of two levels each (classic and fashion style).

For analyzing data, frequency analysis, percent, mean, standard deviation, ANOVA,  $\chi^2$ -test, Duncan test, and Cronbach's  $\alpha$  were us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According to the preference analysis of the fashion style, white collar adult male prefer to wear classic style than fashion in all clothing style, except for rolled-up pants.

2. According to the fashion interest (I) based on the preference analysis of the fashion style, the fashion oriented group had high fashion interest (I) in jacket, pants, and neck-tie.

3. According to the clothing attitude based on the preference analysis of the fashion style; for jacket, the fashion oriented group had high fashion interest, but had no relation with status symbols consciousness, clothing conformity, individuality; for vest, the fashion oriented group had high fashion interest (II) and individuality, but had no relation with status symbols consciousness.

4. According to the clothing attitude based on the sex-role attitude, the group of masculine and feminine had high score in fashion interest (II), status symbols consciousness, and individuality

## I. 서 론

남성들의 사회에서 의복은 사회적 지위와 직업내의 성취의 중요한 지침이며, 그의 목표달성을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되며<sup>1)</sup>, 정신노동자(white-collar worker)는 육체 노동자(blue-collar worker)보다 의복을 더 중요시함으로서 사회구성의 일원으로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sup>2)</sup>.

사실상 다양한 스타일의 여성복과는 달리 남성의 직장이나 공식석상에서의 적절한 옷차림은 득시적인 규범에 의해 수트(정장개념의 신사복)에 한정되어 왔다. 또한 어떤 의미에서는 남성정장은 자신을 위한 복장이라기 보다는 소속된 단체나 사회의 일원임을 나타냄으로써 남을 의식하고 남을 위해서 입어야만 하는 의무적인 복장으로서 유니폼의 성격을 내포하기도 한다<sup>3)</sup>. 이러한 이유로 남성들은 유행의 변화에 대해서는 대부분 당연하고 무관심하게 받아들임으로써 남성정장에 대한 실제적인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남성의복은 뚜렷한 의복규범속에 형태변화가 거의 없었고 착용되는 의복유형도 제한되어온 실정이었으나 최근의 생활양식과 성역할 행동 등의 변화로 인해 남성복에도 변화를 가져와 활동적이면서도 색상과 디자인이 다양한 의복의 착용이 보편화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즉, 일과 여가를 모두 중요하게 여기는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와 더불어 직장에서의 자유스러운 분위기로 과거의 딱딱한 정장에서 많이 탈피하여 실루엣, 색상 면에서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일하는 여성들이 전문직 여성임을 나타내기 위해 남성적인 정장수트를 착용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현상이다.

이와 같이 의복상징의 의미는 고정된 것이 아니고 시대나 문화에 따라 변화된다는 것을 고려해볼때, 현재 일어나고 있는 남성복 변화에 대한 연구는 남성의 복의 유행과 의복규범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직장 남성을 대상으로 하여 의복유형을 남성정장에 국한시키고 남성정장을 전통형 의복과 유행형 의복으로 구분하여 그들이 선호하는 의복스타일과 의복태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또한 성역할 태도를 조사하여 이에 따른 의복 스타일과 의복태도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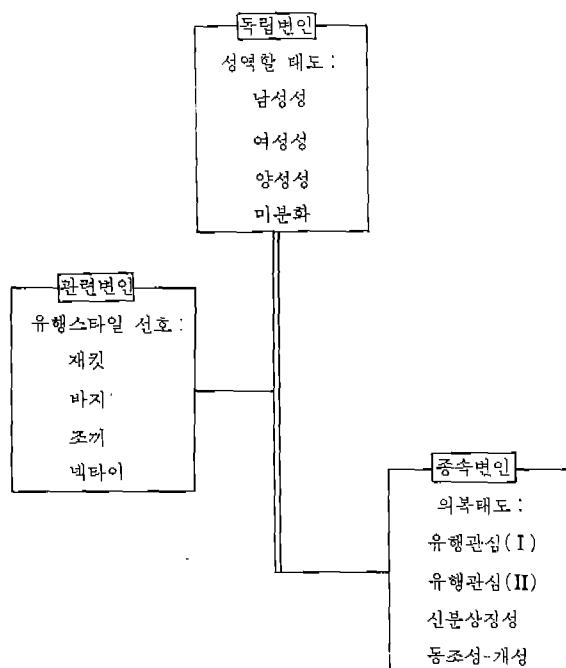
해 조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무직 남성의 유행형 의복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고 이에 따른 의복태도의 차이를 조사한다. 둘째, 사무직 남성의 성역할 태도에 따른 유행형 의복 선호도를 조사하고 이에 따른 의복태도와의 차이를 조사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사무직 남성의 의복태도를 조사함으로써 남성의복 연구에 이론적인 기초를 제공해 주는 동시에 사무직 남성들에게 올바른 의생활 방향을 제시하려는데 있다. 둘째, 사회 활동을 주로 하고 있는 남성들에 있어서 의복의 중요한 역할을 인지시키고, 현대사회에서 직업역할을 수행하는 사무직 남성들이 선호하는 의복 스타일과 의복태도를 연구함으로써 남성복 의류산업체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제품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는데 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사무직 남성의 유행형 의복 스타일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다.
2. 사무직 남성의 유행형 의복 스타일 선호에 따른 의복태도와의 차이를 분석한다.



[그림 1] 연구변인의 구성

- 1) 유행형 의복 스타일 선호에 따른 유행관심(I)과의 차이분석
- 2) 유행형 의복 스타일 선호에 따른 유행관심(II), 신분상징성, 동조성-개성과의 차이분석
3. 사무직 남성의 성역할 태도에 따른 의복태도와의 차이를 분석한다.

- 1) 성역할 태도에 따른 유행관심(I)과의 차이분석 · 성역할 태도에 따른 유행관심(II), 신분상징성, 동조성-개성과의 차이분석

본 연구문제에 따라 설정된 연구변인의 구성은 [그림 1]과 같다.

## 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와 관련된 성역할과 의복, 의복태도, 직장 남성의 의복행동에 관한 문헌을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성역할과 의복

성역할은 개개인이 속하고 있는 사회문화가 남성, 여성에게 기대하는 행동기준을 말하는 것으로서, 각 문화마다 다르고 한 문화권 내에서도 시대에 따라 변천하게 된다<sup>4)</sup>.

현재 급속한 서구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사회에서는 성역할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산업사회로의 전환과 더불어 노동형태와 가족구조가 변화됨에 따라 직장과 가정에서의 남·녀의 역할도 변하게 되어 남성에게 강한 육체적 힘이나 부드러운 정서의 억압, 여성에 대한 권위적인 태도, 같은 남성간의 강한 유대 등을 강조했던 기존의 성역할보다는 다감하며 감정적인 친밀성, 대인관계의 기술 등을 요구하고 있다<sup>5)</sup>.

또한 성역할의 변화는 개념의 변화를 가져와 전통적인 남향성, 여향성이라는 단일차원의 양극개념으로부터 이들을 개별차원상의 독립적인 것으로 보는 양성성 개념으로 변화하였다<sup>6)</sup>.

심리학자들은 남녀 모두가 현대사회에서 하나의 인간으로서 자신이 가진 최대의 잠재력을 발휘하여 풍족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의 점진적인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상적인 모델로서 양성성(androgyyny)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양성성

(androgyyny)은 화합어의 남성을 일컫는 andro와 여성을 일컫는 gyn의 복합용어로써 하나의 유기체 내에서 남성성과 여성성이 함께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심리적 양성성은 현재 성역할 연구에서 초점이 되고 있다.

심리적 양성성과 관련된 연구 결과 등을 살펴보면 양성적인 사람일수록 도덕성이 더 빛날되고, 사회적 안정도와 지적능력이 높고, 자아실현성이 높으며, 적응성이 좋고 객관적인 평가력이 높고 유동적인 성격을 지니며, 성취 동기가 높고 심리적 건강에서도 보다 우수한 상태를 유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Davis<sup>8)</sup>는 생물학적 성과 성정체감 및 성에 관계된 의복행동 사이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남녀 모두 성과 관계된 의복에 영향을 미친 것은 생물학적 성이었고 남성의복에 대한 주 효과는 성정체감이었으며 또한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성별에 알맞는 의복을 착용하는 것은 적절한 성역할 행동의 확실한 표현이며 남성은 남성적인 의복을, 여성은 여성적인 의복을 착용함으로써 남성은 남성으로 여성은 여성으로 보여지게 되어 각 개인들은 남성 또는 여성의 성역할 태도에 따른 의복을 착용함으로서 사회적으로 규명된 성차별은 고수하게 된다고 하였다.

Kaiser와 Phinney<sup>9)</sup>는 전통적으로 성정형화된 놀이 활동에 대한 어린이들의 태도에서 여성적이고 조용한 놀이를 하는 어린이는 스커트를 즐겨 착용하는것으로 보고하였다.

진(jean)을 중심으로 한 여대생의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에서<sup>10)</sup> 여성의 역할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지닌 사람이 진을 더 실용적이라 하였고 착용빈도도 높았다. 또한 진의 소유량과 착용도는 디자인 기호와 관계가 있어 진을 더 많이 소유하거나 착용한 사람이 남성적인 디자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으며,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유니섹스 의복행동과 성역할 태도와의 관계연구<sup>11)</sup>에서는 여성의 역할에 대해 좀 더 개방적인 태도를 가진 여고생이 유니섹스 의복행동에 좀 더 긍정적이며 티셔츠, 진 바지의 착용도 높았고, 또 경제수준이 높고 어머니의 교육정도가 높을 수록 좀 더 개방적인 성역할 태도를 갖고 있으며 유니섹스 의복을 더 좋게 생각한다고 하였다.

## 2. 의복태도

### 1) 유행관심

유행은 특정한 시기에 널리 받아들여지고, 채택되는 스타일 또는 생활양식으로, 새로운 것은 추구하며 주기적인 특성을 지닌 하나의 사회적인 집합현상으로 설명된다<sup>12)</sup>. Sproles<sup>13)</sup>는 사회의 변화가 몇 가지 측면에서 유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으며, 근대화, 인구통계학적 추세, 새로운 가치관, 역사적 사건, 성역할의 변화 등에서 기인하는 사회변화를 중요한 것으로 꼽았다.

Anspach<sup>14)</sup>는 유행은 불안한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도움을 주며 적대감이 있는 개인이나 집단 상호간에 필요한 것이 여서 집단이나 개인 상호간을 다르게 나타내기도 하고, 공통적인 결합물로 연결시키기도 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는 또한 최신 유행을 수용하는 상류층은 세련되고, 자기표현의 욕구가 강한 집단이며, 중류층은 동조성에 보다 큰 관심을 갖고,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의복과 실용적인 의복을 선호하며, 하류층은 경제적인 이유로 실용적인 의복을 받아들이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를 꺼려하는 보수적인 성향으로 발전하기 쉬우며<sup>15)</sup>, Fuller의 연구에서는 남학생들이 회사원보다 유행을 더 인식하고 있었고, 특히 고학년보다 저학년이 유행관심이 높았다고 보고하였다<sup>15)</sup>. 또한, 고애란<sup>16,17)</sup>의 연구에서는 성인남자들의 유행관심은 20대에서 가장 높고 50대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고 하였고, 우리 나라 남성들은 의복수용에 있어서 최신 유행을 선호하지 않았고 보통 유행하는 정도의 의복에서 많이 이탈하지 않는 것을 좋아하며 연령과 직업에 의해 의복수용의 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지위가 낮을수록 의복의 안락감을 중요시하고 지위가 높을수록 의복의 신분상징과 유행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 2) 신분상징성

의복을 통하여 착용자가 사회 안에서 어떠한 경제적, 사회적, 권위적 계층에 위치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하며 의복으로서 권위를 나타내는 방법은 올바른 옷차림을 하거나 충실히 유행을 따르거나 많은 의복을 소유하거나 아름답고 비싼 의복을 착용함으로써 가능

하다<sup>19)</sup>. 특히, 남자들 사이에서 의복은 사회적 지위와 성공을 나타내는 유품 되는 간판이며<sup>20)</sup>, 나이가 많아 절수록 신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의복을 열거하였다<sup>21)</sup>. Hoult의 남자들을 대상으로 실제인물의 사진을 이용해서 의복을 다르게 입혀본 실험연구와 이와 비슷한 Douty의 연구에서도 의복을 바꾸어 입힘에 따라 사회계층이 달라 보인다고 말함으로서 의복이 서로 잘모르는 사이에 사회, 경제적 신분을 나타내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을 설명하였다<sup>22)</sup>.

성인 남자 125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sup>23)</sup> 도시사회에서의 신분상징성에 대해 면담한 결과, 신분상징의 단어는 의복, 직업, 생활방식 등이었다. 또한 상류계층에 속하는 정신 노동자들은 자기 직장에서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자하는 잠재적 희망의 전지에서 의복을 중요하게 평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 3) 동조성-개성

자신이 속한 집단에 잘 수용되는 의복은 경쟁적인 사회에서 성공 및 자존심유지를 가능하게 해주며<sup>24)</sup>, 동조하는 의복행동은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sup>6)</sup>. Taylor<sup>25)</sup>는 의복에 동조하는 사람은 의복의 미적 요소에는 관심이 없으며 주위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을 받아들인다고 하였다.

남성들은 여성보다 의복동조가 심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여성보다 규범의 이탈에 대한 처벌이 가혹하기 때문이다<sup>11)</sup>, 의복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의복 동조성에 대한 일반적 태도 연구<sup>24)</sup>에서는 여자보다 남자가 더 동조적이었고 한편 상황에 따른 동조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높았다. 이로써 남자는 여자보다 일반적인 의복규범을 더 따르고 있었고, 여자는 특정한 상황에서 의복규범을 더 중요시하였다.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동조성 연구<sup>25)</sup>에서는 남학생은 타인과 같게 보이고 싶은 욕구로 의복을 선택한다고 하여 동조성이 중요한 의복행동요인임을 시사하였으며, 대학생들은 동료집단의 승인과 안정감을 얻기 위해 동조성이 높다고 하였다.

성인남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 내향성 성격이 강한 사람이 외향성 성격이 강한 사람보다 의복의 동조성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성인남자를 대상으로 한 인구 통계학적 변인(연령, 사회, 경제적 지위)과 의복행동(안락감, 만족도, 신분 상징성, 동조성, 유행관심)변인과의 관련성을 연구한 결과에서

는<sup>17)</sup>, 연령은 동조성과 유행관심에서 상관을 보여 40~50대는 동조성이 높으며 유행관심은 20대에서 가장 높았고, 직장 남성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경제수준, 월수입, 종사기간이 높을수록 의복에 대한 동조가 크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 4) 직장 남성의 의복행동

의복행동은 인간의 행동중의 하나로서 의복을 통해서 착용자의 신분, 직업, 관심, 태도, 가치관 및 성격 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의복은 인간의 어느 연령층에서나 그들의 생활상을 반영하고 있어 의복 행동이 지닌 상징적인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의복은 착용자의 신분을 나타내는 동시에 그것을 착용함으로써 집단의 인정을 받고 소속감을 느끼게 하기도 한다. 직업인의 의복은 직업적 신분상징의 역할이 매우 커서 육체 노동자는 작업복 및 유니폼에 의해 인지되고 정신 노동자는 수트 및 스포츠 웨어로 인지된다<sup>28)</sup>. 고애란<sup>18)</sup>연구에 의하면 성을 재킷이 사무직, 관리직, 전문직 등의 정신 노동자에 의해 넓게 수용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직업별로 볼 때 조끼 위에 보수적인 무지의 회색 수트를 착용하면 아주 중요한 인물로 여겨지며<sup>27)</sup> 경제단체는 고객을 대하는데 있어서 그들의 유능함과 성공을 상징하는 호감이 가는 인상을 만들려는데 역할을 두고, 또 한편 세일즈맨은 그들이 상대하는 고객들이 자신들과 같은 부류로 구분되는 사람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보수적인 중상류 층의 의복을 착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또 그렇게 착용함으로서 판매가 향상되었다고 한다<sup>28)</sup>.

Molloy (1978), Hix (1978, 1981), Furstenberg (1978), Jackson (1984)등은 남성들의 사회생활을 위한 성공을 위한 의복(dress for success)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성공을 위한 의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sup>3)</sup>.

첫째, 비지니스세계에서 가장 권위적이며 능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효과를 가진 의복은 한벌 정장(suit)이며, 정장 스타일을 크게 싱글 정장(single breasted suit)과 더블 정장(double breasted suit)으로 나눌 수 있다. 싱글정장은 컨설버티브 클래식(conservative classic)이며, 더블 정장은 엘레강트 클래식(elegant classic)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더블 정장은 어느 정도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있는 남성들에게 어울

린다.

둘째, 정장의 색은 감색계열이 가장 좋으며 그 외에 적합한 색으로는 회색 등이 있다. 같은 색이라도 진한 색이 짙은 색보다 효과적이다.

셋째, 벡타이는 남성복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으로 즉각적이고 두드러지게 눈에 띠어 착용자의 태도나 지위를 나타내준다. 벡타이의 색은 수트나 셔츠보다 진하고 채도가 낮은 것이 권위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며, 벡타이의 무늬는 작고 제한된 것이 좋은데 작은 불방울무늬, 줄무늬, 격자무늬 등은 formal한 것으로 지각된다고 하였다. 또한 Bell<sup>29)</sup>의 연구에 의하면 컨설버티브 수트(conservative suit)를 입은 사람은 캐주얼을 입은 사람보다 더 매력적이며 지식이 풍부하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볼 때 사회 활동을 하는 사무직 남성들에게 있어서 의복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1. 측정도구

자극물 제작을 위하여 유행경향 조사를 실시하였다.

##### 1) 유행경향 분석

1993년 봄부터 1993년 겨울까지 발간된 국내잡지(맨스라이프, 월간복장, 남성의 멋등)와 카탈로그(반도, 갤럭시, 트래드클럽 등) 및 국외 잡지(men's collection, gap, men's club)를 토대로 전반적인 남성 의복의 유행경향을 파악하고 국제양모사무국(I.W.S)에서 발표한 1993-94 A/W men's wear trend report와 한국 복장기술 경영협회에서 주최한 패션 쇼와 패션경향 report를 참조하여 유행경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남성의복 유형 별로 나타난 유형 의복형태는 <표 1>과 같다.

##### 2) 자극물 제작

유형별 의복 선호 측정을 위한 자극물은 남성의복에 변화를 주는 요인을 크게 재킷, 바지, 조끼, 벡타이 형태로 구분하고, 각각의 변인에 대해 2종류씩 유형별과 전통형의 디자인으로 남자 의복착용자의 그림을 그려 사진을 활용하여 제시하였다. 이러한 디자인은 대학원생 및 직장남성들의 평가를 거쳐 총 8유형의 선정되었으며, 이를 유사한 유형으로 묶어서 4유목(類目)으로 분류하였다.

8유형의 디자인은 각각 2가지의 디자인 즉 유행형의 디자인, 전통형의 디자인의 순서대로 제시하였다. 응답요령은 자신이 의복을 구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각 유형 별로 선택하고 싶은 디자인 하나를 고르도록 하였다. 한편, 디자인의 편견을 제거하기 위해 자극물내의 의복착용자의 자세, 얼굴, 머리형태, 배경 등을 일정하게 통일하였다. 자극물에 사용된 그림은 다음과 같다. [그림 2~5참조]

### 3) 성역할 태도 검사

성역할 태도 검사는 Bem(1974)의 Sex Role Inventory를 사용하였으며 이 검사 결과에서 가능한 점수범위는 40~200점이며 중앙치(120점)을 기준으로 4개 집단인 남성성(masculine), 여성성(feminine), 양성성(androynous), 미분화(undifferentiated)로 구분하였다.

즉, ① 남성성 점수가 높고 여성성 점수가 낮은 사람을 남성성 특성이 높은 것을 말하며 남성성이라 하고 ② 여성성 점수가 높고 남성성 점수가 낮은 사람을 여성성 특성이 높은 것을 말하며 여성성이라 칭하고, ③ 남성성 및 여성성의 점수가 모두 높은 사람은 양성의 특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양성성이라 칭하고 ④ 남성성, 여성성의 점수가 모두 낮은 사람을 양성의 특성이 낮은 것을 의미하며 미분화라 칭한다.

### 4) 의복태도검사

본 연구의 의복태도에 대한 검사는 유행관심(I), 유행관심(II), 신분상징성, 동조성-개성을 포함하였다.

#### (1) 유행관심(I) 검사

유행관심(I)에 관한 사항은 남자들의 현재유행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고 그 관심이 어떠한 행동 결과로 나타나는지를 조사하는 것으로서 본 연구를 위해 작성하였다. 유행관심(I)검사의 질문내용으로는 (1) 젊은 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화사한 색조의 양복에 대한 느낌 (2) TV, 쇼 프로그램 등에 등장하는 연예인들의 의상에 관한 느낌 (3) 젖어진 청바지 차림의 젊은이들의 거리 의상에 관한 느낌을 묻는 3문항으로서, 느낌의 정도에 따라 1점에서 4점까지 부여하였다. 가능한 점수범위는 3~12점으로서 여기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유행관심(I)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 (2) 의복태도 검사

전반적인 유행관심도를 알아보기 위한 유행관심(II),

신분상징성, 동조성-개성을 의복태도로 하여 각 변인마다 선형연구에서 일관성 있게 신뢰도 계수가 높았던 문항을 6문항씩 선택하여 5단계 Likert-type으로 측정하였다.

##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서울에 거주하는 사무직 남성을 대상으로 연령분포를 고려한 편의표본 추출방법을 사용하였다. 자료수집은 사무직 남성 40명을 대상으로한 예비조사를 걸쳐 수정, 보완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부분적으로는 피험자 자신이 기술하게하였고, 유행형 의복 선호에 관한 문항에서는 구조화된 면접법을 사용하였다.

<표 1> 남성복의 유행경향 분석 내용

	유 행 경 향
의복 스타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깨풀이 협령한 여유 있는 실루엣</li> <li>· 자연스럽게 흐르는 어깨선과 부드러운 느낌의 정장 스타일</li> </ul>
재킷 (jack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칼라의 목둘레선 길이(V선)가 짧아지고 칼라의 크기가 작아짐</li> <li>· 6개의 단추가 달린 더블 브레스트 재킷이 유행</li> <li>· 3~4개 이상의 단추가 달린 싱글 브레스트 재킷이 유행</li> </ul>
바지 (pa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콜로지 영향을 받은 내추럴한 이미지의 디자인이 강세를 이룸</li> <li>· 허리주름(tuck)이 없어지거나 줄어드는 경향</li> <li>· 바지 밑단의 접은단(rolling up)이 유행</li> <li>· 넓은 바지통이 유행</li> </ul>
조끼 (ve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끼를 단품으로 코디네이트 시키는 추세</li> <li>· 4~6개의 단추가 많이 달린 형태의 조끼가 유행</li> <li>· 목둘레선 길이(V선)가 짧아지는 경향을 보임</li> </ul>
넥타이 (neck-ti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벡타이 폭이 넓어지는 경향</li> <li>· 대담하고 화려한 디자인과 무늬가 점점 커지는 경향</li> <li>· 원색적인 대담한 칼라를 사용</li> </ul>

자료수집 기간은 1994년 2월 중순부터 3월 초순에 이루어 졌으며, 훈련된 면접자들에 의해 대기업 중심(대우, 벽산, 한전동)으로 수집되었다. 총 350부중, 불완전한 응답을 제외한 305부가 통계처리에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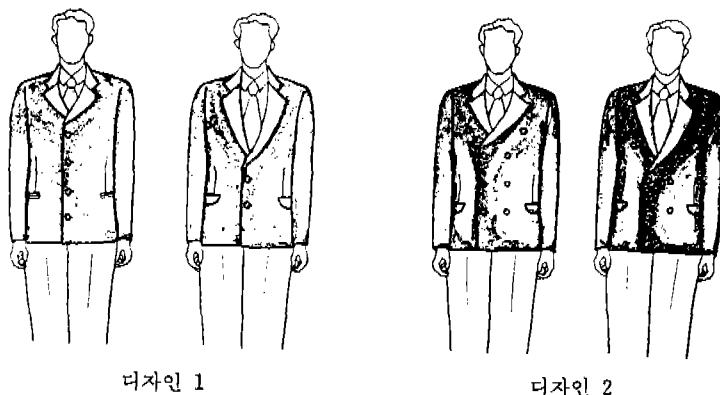
표집대상의 연령, 교육수준 및 경제수준의 분포 경향은 연령은 유행에 민감한 직장인으로 예상되는 20대 초에서 30대 후반까지로 제한하였는데 26~30세가 68.4%로 대다수였으며 31~35세, 21~25세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대학졸업 이상이 91.9%로 교육수준이 높았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으로 일원분산분석,  $X^2$  검증, Duncan의 사후개별비교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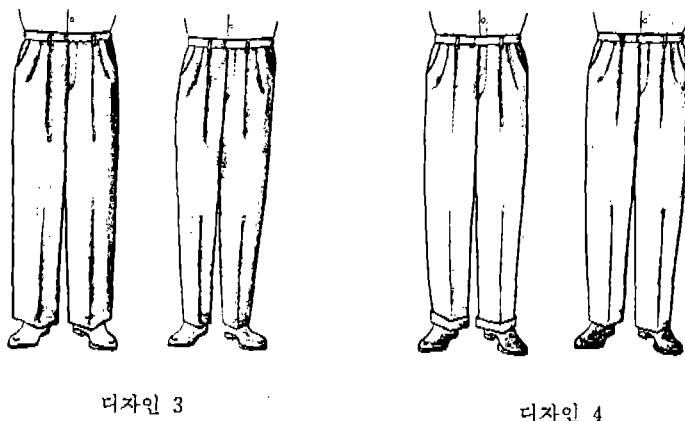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1. 유행형 의복 선호도 분석

싱글브레스트 재킷의 경우, 응답자의 85.1%가 전통형을 14.9%가 유행형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더블 브레스트 재킷의 경우 87.7%가 전통형을, 12.4%가 유행형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 재킷의 형태와 관계없이 모두 전통형의 재킷을 높게 선호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바지통 선호도의 경우, 응답자의 75.7%가 좁은 바지통을, 24.3%가 넓은 바지통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바지 접은단 유, 무의 선호에서는 응답자의 54.6%가 접은단이 있는 것을, 45.4%가



[그림 2] 재킷 디자인



[그림 3] 바지 디자인

접은단이 없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었다. 조끼착용 유, 무에서는 응답자의 54.9%가 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을, 45.1%가 조끼를 착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조끼 디자인 선호에서는 응답자의 34%가 유행형의 디자인을, 66%가 전통형의 디자인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벡타이 폭의 경우, 응답자의 66.8%가 좁은 폭의 벡타이를, 33.2%가 넓은 폭의 벡타이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벡타이 문양의 경우, 응답자의 58.3%가 줄무늬(stripe)의 벡타이를, 46.2%가 화려한 무늬의 원색적인 벡타이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 2. 유행형 의복 스타일 선호에 따른 유행관심(I)과의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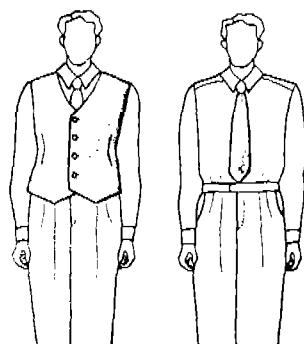
유행형 의복 스타일 선호에 따른 유행관심(I)과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의복선호 집단을 3부분으로 구분하였다. 즉, 재킷, 바지, 조끼, 벡타이의 각각 2 문항에서 둘다 유행형 의복만을 선호한 사람을 유행형, 유행형과 전통형 의복을 하나씩 선호한 사람을 중간형, 둘다 전통형 의복만을 선택한 사람을 전통형으로 나누어 유행관심(I)과의 차이를 일원변량분석과 Duncan의 사후개별비교를 통하여 알아보았다. 결과는 <표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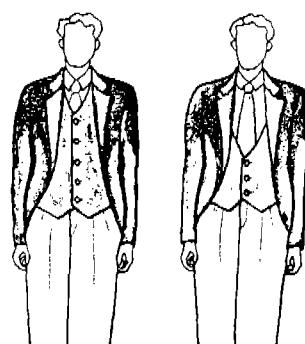
<표 2>에 의하면, 각 변인의 가능한 접수는 3~12점이며, 접수가 높을수록 유행관심(I)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유행형 의복 스타일 선호에 따른 유행관심(I)과의 관계를 보면, 조끼를 제외한 재킷, 바지, 벡타이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재킷에서는 유행관심(I) 접단과  $p < .05$ 수준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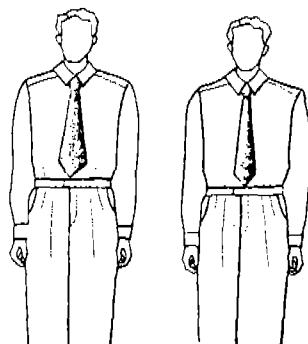


디자인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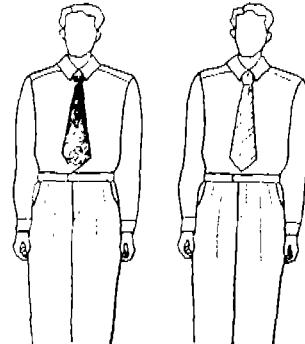


디자인 6

[그림 4] 조끼 디자인



디자인 7



디자인 8

[그림 5] 벡타이 디자인

&lt;표 2&gt; 선호하는 의복스타일의 유행수준에 따른 유행관심(I)과의 차이 분석

자극물의 유행수준	자극물 구분											
	재킷			바지			조끼		넥타이			
	유행형	중간형	전통형	유행형	중간형	전통형	유행형	중간형	전통형	유행형		
유행관심(I)의 평균	9.4	8.0	8.0	8.6	8.3	7.4	8.5	8.0	8.0	8.4	8.3	7.6
Duncan <sup>a</sup>	A	B	B	A	A	B			A	A	B	
F	3.95			8.98***			N.S		5.87**			

\*p&lt;.05 \*\*p&lt;.01 \*\*\*p&lt;.001

a : Duncan의 사후개별비교 결과로서 같은 문자는 집단간 평균에 유의차가 없는 것을 나타냄.

&lt;표 3&gt; 의복태도에 대한 빈도분포

점수범위	유행관심(II)		신분상징성		동조성-개성	
	빈도	%	빈도	%	빈도	%
26점이상	9	( 3.0 )	5	( 1.6 )	4	( 1.3 )
21~25	83	( 27.4 )	45	( 14.8 )	25	( 8.3 )
16~20	127	( 41.9 )	151	( 49.7 )	147	( 48.8 )
11~15	73	( 24.1 )	95	( 31.3 )	124	( 41.2 )
10점이하	11	( 3.6 )	8	( 2.6 )	1	( 0.3 )
평균	18.09		17.14		16.48	
표준편차	4.26		3.64		3.27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즉 유행형의 재킷을 선호한 집단이 중간형의 재킷을 선호한 집단과 전통형의 재킷을 선호한 집단보다 유행관심(I)이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바지에서는 유행관심(I) 집단과  $p < .001$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즉 유행형의 바지를 선호하는 집단과 중간형의 바지를 선호하는 집단보다 유행관심(I)이 좀 더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넥타이에서는 유행관심(I) 집단과  $p < .01$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바지와 같이 유행형의 넥타이를 선호한 집단과 중간형의 넥타이를 선호한 집단이 전통형의 넥타이를 선호한 집단보다 유행관심(I)이 좀 더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 3. 유행형 의복스타일 선호에 따른 의복태도와의 차이분석

#### 1) 의복태도에 대한 빈도분포

사무직 남성의 의복태도에 대한 분포는 <표 3>와 같고 각 변인의 가능한 점수는 6~3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유행관심(II), 신분상징성, 개성에 관심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표 3>에 의하면 의복태도의 유행관심(II), 신분상징성, 동조성-개성중 의복의 유행성과 동조성에 좀 더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의복의 신분상징성에 낮은 관심을 보였다.

#### 2) 유행형 의복스타일 선호에 따른 의복태도와의 차이

유행형 의복스타일 선호에 따른 의복태도와의 차이는 <표 4>와 같다. 각 변인의 가능한 점수는 6~3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유행관심(II), 신분상징성, 개성이 높은 의복을 선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 4>에 의하면 재킷의 유행형, 중간형, 전통형의 복 선호집단과 의복태도 간에는 모두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재킷과 의복태도의 유행관심(II)에서는  $p < .001$ 의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즉, 전통형의 재킷보다 유행형의 재킷을 좀 더 선호하는 사람이 의복의 유행에 관심이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재킷과 의복태도의 신분상징성에서는  $p < .05$ 수준에서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 즉, 중간형, 전통형의 재킷보다 유행형의 재킷을 좀 더 선호하는 사람이 의복의 신분 상징성에 관심이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lt;표 4&gt; 유행형 의복 스타일 선호에 따른 의복태도와의 차이 분석

의복 태도		유행관심(II)		신분상징성		동조성-개성	
의복종류	유행수준	평균	Duncan <sup>a</sup>	평균	Duncan <sup>a</sup>	평균	Duncan <sup>a</sup>
재 킷	유 행	21.8	A	19.3	A	19.1	A
	중 간	18.2	B	16.9	B	17.0	B
	전 통	17.7	C	17.0	B	16.1	C
	F	7.71***		3.36*		7.62***	
마 지	유 행	18.7	A	17.5		16.3	
	중 간	18.8	A	17.4		16.7	
	전 통	16.6	B	16.4		15.9	
	F	9.51***		N.S		N.S	
조 끼	유 행	19.7	A	18.0		17.4	A
	중 간	17.7	B	16.9		16.7	B
	전 통	17.7	B	16.9		15.7	C
	F	4.64***		N.S		5.66***	
넥 타 이	유 행	19.3	A	17.8		17.1	
	중 간	18.3	B	16.8		16.3	
	전 통	17.2	C	17.0		16.2	
	F	4.96**		N.S		N.S	

\*p&lt;.05 \*\*p&lt;.01 \*\*\*p&lt;.001

a : Duncan의 사후개별비교 결과로서 같은 문자는 집단간 평균에 유의차가 없는 것을 나타냄.

재킷과 의복태도의 동조성-개성에서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즉, 유행형의 재킷을 선호한 사람은 개성에 관심이 높게 나타난 반면, 전통형과 중간형의 재킷을 선호하는 사람은 동조성에 관심이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바지에서는 의복태도중 유행관심(II)에서만  $p < .001$ 수준에서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유행형과 중간형의 바지를 전통형의 바지보다 좀 더 선호하는 사람은 의복의 유행에 관심이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그 외에 바지의 의복선호와 신분상징성, 동조성-개성은 전혀 관계가 없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조끼에서는 의복태도중 유행관심(II)은  $p < .05$ 의 수준으로 동조성-개성에서는  $p < .01$ 수준에서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유행형의 조끼를 중간형과 전통형의 조끼보다 좀 더 선호하는 사람은 의복의 유행에 관심이 높게 나타났고, 동조성-개성에서는 전반적으로 의복의 동조성에 관심이 높게 나타났으나 그 중 전통형의 조끼를 좀 더 선호하는 사람이 동조성에 관심이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그 외의 조끼의 의

복선호와 의복태도의 신분상징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게 나타났다.

넥타이에서는 의복태도의 유행관심(II)에서  $p < .01$ 수준에서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유행형의 넥타이를 좀 더 선호하는 사람은 의복의 유행에 관심이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그 외에 넥타이의 폭과 문양선호와 의복태도의 신분 상징성, 동조성-개성과는 관계가 없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볼 때, 재킷의 유행형 의복 스타일 선호집단은 유행관심(II), 신분상징성, 개성변인 모두에서 관심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재킷이 남성정장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바지, 넥타이의 경우에는 유행형 의복 스타일 선호집단이 유행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의복 스타일 선호경향과 신분상징성, 동조성-개성변인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끼는 유행형 의복 스타일 선호집단이 유행관심(II)과 개성변인에서 관심이 높게 나타났고 신분상징성과는 관계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조끼는 재킷과 더불어 코디네이트 하여 입는

&lt;표 5&gt; 성역할 태도에 따른 의복 스타일의 유행수준 차이분석

단위(빈도수)

성격 특성	의복 종류												전 체	
	재킷			바지			조끼			넥타이				
	유행형	중간형	전통형											
남성성	7	15	64	13	46	27	17	42	28	24	30	33	87	
여성성	2	9	52	6	35	24	8	31	25	10	26	29	65	
양성성	5	12	60	7	49	23	12	36	31	12	33	32	79	
미분화	3	9	52	7	36	22	9	29	26	8	38	19	65	
전체	17	45	228	33	166	96	46	138	110	54	127	113	296	
X <sup>2</sup> 검증	$X^2 = 2.47$			$X^2 = 3.19$			$X^2 = 3.19$			$X^2 = 2.42$			$X^2 = 13.43$	
	$df = 6$			$df = 6$			$df = 6$			$df = 6$			$df = 6$	
	N·S			N·S			N·S			N·S			$p < .05$	

단품이므로 신분상징성과는 관계없이 유행관심(II)과 개성이 높게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 4. 성역할 태도에 따른 유행형 의복 스타일 선호 와의 차이분석

성역할 태도를 남성성, 여성성, 양성성, 미분화의 4개의 성격특성으로 구분하여 유행형 의복 스타일 선호도와의 차이를 X<sup>2</sup>검증으로 알아보았다.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 의하면 4개의 성역할 태도에 따라 유행형 의복 스타일과의 관계에서 넥타이에서만  $p < .05$ 수준에서 유의적 차이가 나타났고 재킷, 바지, 조끼에서는 유의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넥타이에서는 남성성과 여성성집단이 넥타이 폭이 좁고, 문양이 단조로운 줄무늬의 전통형을 선호한 반면에 양성성과 미분화집단은 유행형과 전통형을 하나씩 선호함으로서 넥타이 선호에 차이를 나타냈다.

이것은 성역할 태도에 따라 의복디자인 선호간에 유의적인 차가 없다는 김광경<sup>30)</sup>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해 주며, 여대생의 의상디자인 선호와 남향성-여향성 성격 사이에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는 Kahng<sup>31)</sup>의 연구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현대의 성역할 변화와 더불어 나타난 의복의 유니섹스 모드(unisex-mode)의 영향과, 사회적 추세의 하나인 리조트 마인드(resort-mind)의 경향으로 나타난 캐주얼의 확산으로 인한 결과라고 보여

진다.

그러나 성역할 태도에 따른 유행관심(I)과의 관계 분석에서는 유의적 차이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성역할에 대한 태도와 유행관심(I)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며 이것은 표집 대상을 유행에 민감한 20대 초반에서 30대 후반의 사무직 남성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유행관심(I)이 성역할 태도별로 풀고루 분포되어 성역할 태도와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 5. 성역할 태도에 따른 의복태도와의 차이분석

성역할 태도에 따른 의복태도와의 차이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각 변인의 가능한 점수는 6~3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유행관심(II), 신분상징성, 개성이 높은 의복을 선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 6>에 의하면 성역할에 대한 태도와 의복태도의 각 변인간에는 유의적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역할 태도와 의복태도의 유행관심(II)에서는  $p < .01$ 수준에서 유의적 차이를 보여 남성성, 양성성의 집단이 여성성과 미분화 집단보다 의복의 유행에 관심이 높게 나타났다. 신분상징성에서는  $p < .05$ 수준에서 유의적 차이를 보여 남성성, 양성성집단이 여성성의 집단보다 의복의 신분상징성에 관심이 높게 나타났다. 동조성-개성에서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적 차이를 보여 남성성과 양성성의 집단이 여성성과 미분화의 집단보다 개성이 좀더 높게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개성

&lt;표 6&gt; 성역할 태도에 따른 의복태도와의 차이분석

성격특성	의복태도					
	유행관심(II)		신분상정성		동조성-개성	
	평균	Duncan <sup>a</sup>	평균	Duncan <sup>a</sup>	평균	Duncan <sup>a</sup>
남성성	19.1	A	17.4	A	17.1	A
여성성	16.3	C	15.9	B	15.5	B
양성성	18.6	A	17.8	A	17.1	A
미분화	17.4	B	16.8	AB	15.4	B
F	5.28**		3.78*		6.73***	

\* p&lt;.05 \*\*p&lt;.01 \*\*\*p&lt;.001

a : Duncan의 사후개별비교 결과로서 같은 문자는 집단 간 평균에 유의차가 없는것을 나타냄.

보다 동조성이 높게 나타났다.

위의 결과에서 볼 때, 의복태도의 모두에서 남성성과 양성성이 높게 나타나는 유의적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한 홍선옥<sup>28)</sup>의 연구와 일치하며, 의복에서 개성적인 것을 특히 강조하는 사람은 여성적인 사람이라는 인자<sup>32)</sup>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으며, 자신감이 높은 사람 즉, 남성성향이 강한 사람은 의복선택에 있어 동조성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정하신<sup>33)</sup>의 연구와는 일치한다.

## V. 결 론

첫째, 유행형 의복 스타일 선호도에서 바지의 절은 단 유, 무를 제외한 모든 의복유형, 특히 재킷에 있어서 유행형 의복 스타일보다는 전통형 의복 스타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행형 의복 스타일 선호에 따른 유행관심(I)과의 관계분석에서는 유행형 의복 스타일을 선호하는 사람이 유행관심(I)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역할 태도에 따른 유행관심(I)과의 차이분석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의복태도에서는 바지와 넥타이는 유행관심(II)에서, 조끼는 유행관심(II)과 개성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었고, 재킷의 경우 유행형의 재킷을 선호한 사람들이 유행관심(II), 신분상정성, 개성에 모두 관심이 높게 나타났다.

넷째, 성역할 태도에 따른 유행형 의복 스타일에 대

한 선호조사에서는 넥타이에서만 부분적으로 의미 있게 나타나 성역할 태도는 의복 스타일 선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성역할 태도에 따른 의복태도와의 차이분석에서는 남성성, 양성성 집단이 유행관심(II), 신분상정성, 개성 변인에서 관심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성성, 미분화는 낮게 나타났다.

## VI.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다양한 의복중 남성 정장만을 사용하였으며 다양한 의복의 속성중 의복의 형태만을 유형성차원으로 조작하여 제한했다는 점이고 둘째, 의도적 표집에 의하여 서울에 거주하는 대·중소 기업의 사무직 남성으로 고교졸업 이상에서 대학원에 이르는 높은 학력을 가진 집단에 편중되었다는 점이다.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남성 정장만을 사용하였으므로 남성복에 있어 보다 다양한 의복, 즉 캐주얼, 스포츠 웨어 등과 같은 의복을 포함하여 의복 스타일 선호를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정장차림에서 의복 스타일 선호경향과 그에 대한 영향을 조사한 것으로 재킷의 형태, 바지의 형태, 조끼디자인, 넥타이의 디자인만을 포함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그 외의 의복단서로 다양한 질감이나 무늬, 색상을 선정하여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피험자를 20~30대의 사무직 남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연령층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서울에 거주하는 사무직 직장 남성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피험자의 직업을 달리하거나 또는 직업유형을 세분화하여 직업유형에 따른 의복 선호에 관한 연구가 요구된다.

## 참 고 문 헌

- 1) Hurlok, E.B. Development Psychology (4th ed.), New Delhi: Tata McGraw-Hill Publishing Co., Ltd. (1978)

- 2) Form, W.H. and Stone, G.P. Urbanism, Anonymity and Status Symbolism,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62. (1957)
- 3) 이은미. 남성 정장착용자의 연령 및 의복단서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재인용
- 4) 장재성. 중년여성의 성역할 경체감과 심리적 전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8)
- 5) Bernard, J. Change and Stability in Sex-Role Norms and Behavior, *Journal of Social Issues*, 32(3). (1976)
- 6) 남미우. 상황, 의복단서 및 관찰자 변인이 남자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 7) 문영란. 직장인의 성역할 경체감과 성공공포와의 관계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 8) Davis, L.L. Sex Gender Identity and Behavior Concerning Sex-related Clothing,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3(2) (1984)
- 9) Kaiser, S.B. & Phinney, J.S. Sex Typing of Play Activities by Girls Clothing Style: Pants Versus Skirt, *C.S.J.*, 13(2) (1983)
- 10) 정삼호. 진(jean)을 중심으로 한 여대생의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7)
- 11) 최경희. 여고생의 의복행동과 성역할 태도와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 12) 강혜원. 의상 사회 심리학, 서울: 교문사. Sproles, G.B. (1989). *Fashion Marketing*, N.Y.: Burgess Publishing Co. (1984)
- 13) Sproles, G.B. *Fashion Marketing*, N.Y.: Burgess Publishing Co. (1989)
- 14) Anspach, K. Clothing Selection and the Mobility Concept, *Journal of Home Economics*, 53(6). (1961)
- 15) 강혜원. 대학생의 개성과 유행을 중심으로한 의상행위와 성격특성과의 관계, 연세논총, 제11집 (1974)
- 16) 고애란. 성인남자의 의복행동과 강화통제 및 신체적 만족과의 상관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 17) \_\_\_. 성인남자의 연령 및 사회경제적 지위와 의복행동과의 상관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25권, 1호, (1987)
- 18) Latzke, A. & Hostter, H.P. *The Wide World of Clothing*, N.Y.: The Ronald Press Co. (1968)
- 19) Veblen, T. Dress as an Expression of Pecuniary culture, from the theory of the leisure class, N.Y.: The Mcmillian Co. (1912)
- 20) Alexander, O.N. A Pilot Investigation of The Motives Underling the Desire to Feel Well-Dressed at Various Age Levels, M.S. Thesis. Cornell Univ. (1961)
- 21) Ryan, M.S. *Clothing: A Study in Human Behavior*,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1966)
- 22) McJimsey, H.T. *Art and Fashion in Clothing Selection* (2nd ed.), Ames Iowa: The Iowa State Univ. Press. (1973)
- 23) Taylor, L.C. *Conformity in Dress and Selected Color, Design, Texture and Personality Variables*. Master's thesis, Utah State Univ. (1967)
- 24) 정미실. 규범 및 정보적 영향에 의한 의복 동조성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 25) 홍선옥. 성인남자의 의복행동과 사회적 내향성, 의향성 성격과의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 26) Horn, M.J & Gurel, L.M. *The Second skin* (3rd ed.), Boston: Houghton Mifflin Co. (1981)
- 27) Molloy, J.T. *Dress for Success*, N.Y., Warner Books, Inc. (1978)
- 28) Kaiser, S.B.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2nd ed.), N.Y.: Mcmillian. (1990)
- 29) Bell, E.D. Adult's Perception of Male Garment Style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0(1). (1991)
- 30) 김광경. 남성적, 여성적의복이 직장여성의 직업특성과 직업적합지각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 31) Kahng, H. Clothing interests and clothing aspirations associated with selected social-psychological factors for a group of college women in Korea, Unpublished Dissertati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1971)
- 32) 이인자. 성격과 의복디자인 선호간의 상관관계연구, 대학 가정학회지, 14(2). (1976)
- 33) 정하신. 여고생의 성격특성과 의복선택요인과의 상관관계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3(4) (1985)